

받아들이며 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 끝은 언제나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끝을 보기도 전에 쓰러지고야 말 것입니다.
땅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이며 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관조와 수용의 열매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2022년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 개최

2022년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가 7월 4일 10시에 진행되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황인봉 동국대학교병원 지부장, 백유진 부위원장, 장수미 사무장이 노측 대표로 참석하였고, 사측에서는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완임 간호부장, 김성원 노사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노사가 상생 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병원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최대한 교섭은 짧게 진행하고 노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2022년 임금협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최예정이다.



영각사 주지 홍진스님 1억 원 기부

서울 정릉 영각사 주지 홍진스님이 1억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했다. 지난 6월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영각사 주지 홍진스님,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홍진스님은 “교계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병원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최첨단 의료장비구입 및 병원 확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기부소회를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홍진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병원이 자비의료 실천의 중심도량으로써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진스님은 자비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종립학교의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장학사업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장학금과 발전기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해외 구호단 등에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포교와 인재양성에 지속적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법주사 상월선원 평화순례 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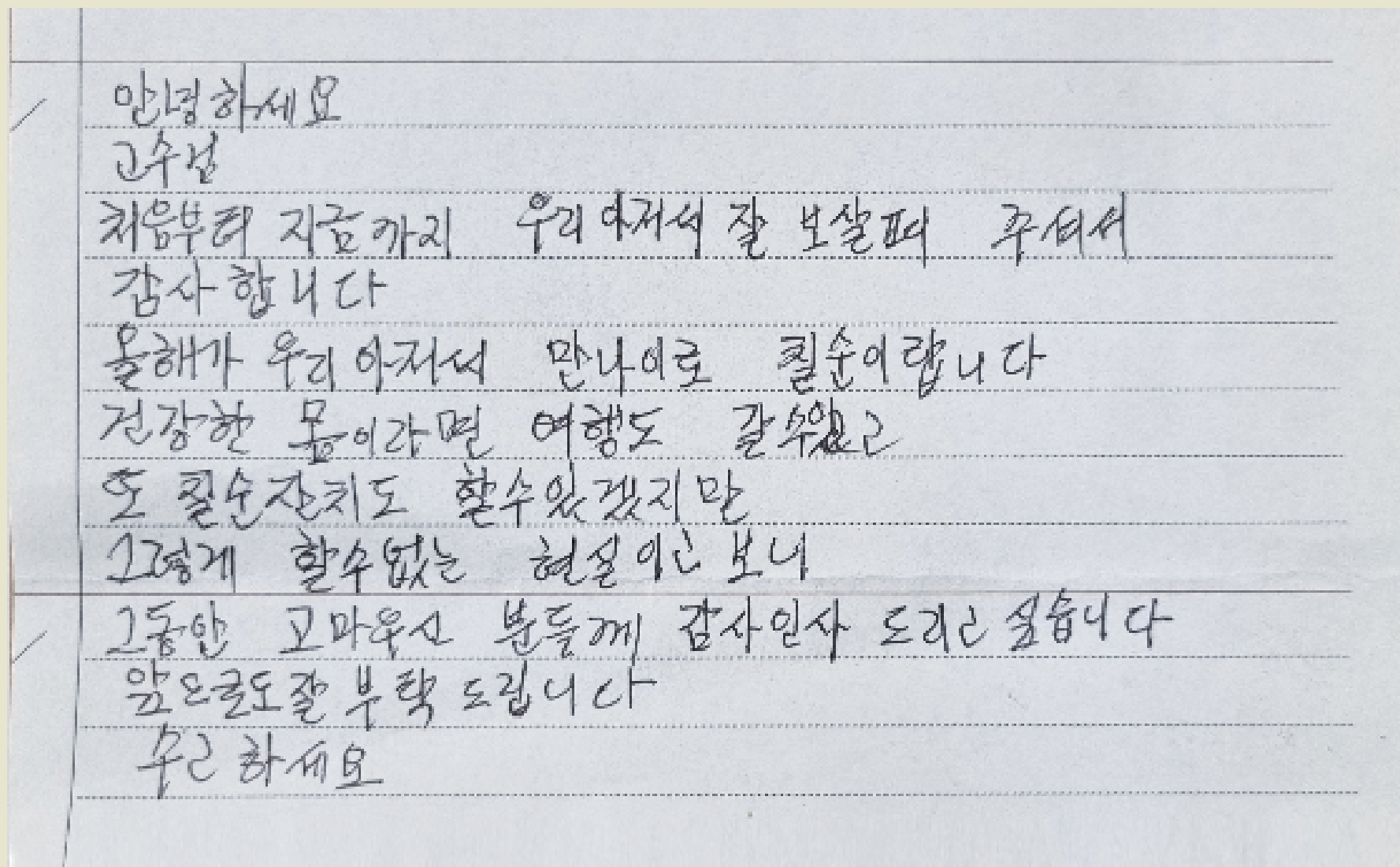
상월결사 순례단은 7월 6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 일원에서 평화 방생 순례를 거행했다. 한국불교 증흥을 발원하고 상월선원 정신을 잇기 위해 진행된 순례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석문과 상수도수원지를 거치는 세조길 7km 구간의 걷기순례를 펼쳤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박완임 간호부장, 행정처 팀장등 직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대외협력홍보팀은 입재부터 회향까지 구급차 및 의료진을 배치하여 순례단의 안전과 건강을 살폈다.



story

“칠순 잔치 비용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난 7월 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광기 교수 환자 유동렬 님의 보호자분이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그동안 치료에 대한 감사의 손 편지와 함께 100만 원을 기부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유동렬 님의 칠순 잔치비용 대신, 그동안 혼신을 다해 치료해주신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짧은 손 편지 한 장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쓰신 기부자의 정성이 가득 묻어있음이 느껴진다.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기간 ▶ 2022. 6. 1. ~ 6. 30.

373 명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진여행 님	2억 원
홍진스님	1억 원
성월스님	2천만 원
법계 명성스님	1천만 원
종성스님	3백만 원
임현희 님	1백만 원
성정열 님	1백만 원
윤문사 사리암	1백만 원
김도현 님	1백만 원
익명	1백만 원

외 363명